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민국교회총연합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8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

2008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 5:39) 성경은 윤리규범서, 행복지침서, 성공전략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길, 진리,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서입니다. (요 14:6)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무합니다. (행 4:12) 그러므로 우리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있다면 절대로 말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보다는 당장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딤후 3:7)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9) 현재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2008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고 교사·찬양대원으로서의 전라과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육에 철저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벧후 3:18)

수요성경공부

교과기간: 9월 10일 ~ 11월 26일 (12주)
· 오후반 2:30 ~ 4:00

교사 양성부

· 저녁반 8:30 ~ 10:00

찬양인양성부

· 매주일 오후 3:00 ~ 4:30

만수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관 307호)
이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관 407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관 507호)
갈릴리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과관 307호)
교과기간: 9월 7일 ~ 11월 23일 (제1교과관 307호)
교과기간: 9월 7일 ~ 11월 23일 (제1교과관 407호)

*신청은 교육국(제1교과관 2층)

*오늘, 찬양예배 시 제4차 학습 및 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감사의 삶

신실한 감사 (요한복음 6:35)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전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딤후 1:3)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등장하는 "내가 곧 ... 이다"라는 일곱 번의 위대한 계시 중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찰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자라고, 영육간에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지킴이는 팔을 펼치셔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따라서 옛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단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호흡,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해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성경은 욥백 마흔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신실한 감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른 사업적 성공, 새로 구입한 집, 대학에 합격한 자녀가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감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된 우리의 놀라운 특권을 생각하는 그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만이 감사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다만 이론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이로다" (롬 5:3~4) 그리스도인은 흑독한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가 물음지도 모르

겠습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통과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하여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을 위해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 많은 죄의 대가를 감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복음전파와 감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진정한 감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계곡을 건너게 하시든지, 이 무엇에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감수하거나 매우 다른 문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천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0여 년 전 이 땅을 밝은 소수의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천만을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열릴 성대한 기쁨의 잔치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감사는 현재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나 직장의 일, 혹은 학업으로 힘겨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만나는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 떡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떡을 먹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을 지속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이 신실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리의 통로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함이 선언됩니다. 생명의 떡을 받아먹으시고(고전 11:23~24)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신실한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TWO FOUNDATIONS

⁽²⁴⁾“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may be compared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²⁵⁾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yet it did not fall, for it had been founded on the rock. ⁽²⁶⁾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act on them, will be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²⁷⁾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and great was its fall.”(Matthew 7:24~27)

Everything depends upon how you handle the truth. Today's Bible verses illustrate the vast differences between a wise person and a foolish person. A wise person is someone who listens to God's word and obeys it, while a foolish person is someone who listens to God's word and neglects it. There are a lot of people sitting in front of me right now who are foolish. They come to church every Sunday and hear my sermons, but then walk right out the church doors and don't practice a thing they heard. Ignoring, putting it off until later, or flat out disregarding God's word is tragic. The Word of God needs to be the foundation upon which you build your life. Let's look at how Jesus describes those who act on God's word and those who do not.

Jesus said of those who act on His word,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may be compared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v. 24) The rock provides a solid foundation. David viewed God as his rock, "He only is my rock and my salvation, my stronghold; I shall not be greatly shaken." (Ps. 62:2) Indeed, the Lord God is our only sure rock. Jesus Christ is our only firm foundation. 1 Corinthians 3:11 says, "For no man can lay a foundation other than the one which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the only safe and stable foundation, "Nevertheless, the firm foundation of God stands, having this seal,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and 'Everyone who names the name of the Lord is to abstain from wickedness.'" (2Tim. 2:19) Is the foundation of your life secure? Do you really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your Savior? Do you build your life upon the Word of God? Jesus goes on to describe the wise man's life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yet it did not fall, for it had been founded on the rock." (v. 25) The wise man's house stood because of his good foundation.

Jesus said of those who do not act on His word,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act on them, will be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v. 26) Surely, this man heard the word of God but that word did not take priority in his house. Instead, this man held his money, reputation, and family above all else. His house did not obey the word of God because other things were more important. Matthew 6:24 say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Many Christians say that they trust God, but their prayers are all about God giving them money and blessings. Their real insides do not really want Jesus and what He wants for them! Their main concern is getting what they want. There are many foundations upon which to build your life. Some people build their lives upon wealth, some pleasure, others pride, and some even build their life upon the praise of other people. What are you building your life on? Jesus says of the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and great was its fall." (v. 27) The storm collapsed the foolish man's house.

Can you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ise man's foundation and the foolish man's foundation? The devastating storms in this parable were the same. The rain, floods, and winds hit both houses with the same force. The difference was in their foundations. The house built on rock stood firm and the house built on sand was utterly destroyed. Please examine the foundation of your life. Will your life stand when the storms arrive? Frankly, the storms of life come to us all. 2Timothy 3:1~2 say, "But realize this, that in the last days difficult times will come. For men will be lovers of self, lovers of money, boastful, arrogant, revilers, disobedient to parents, ungrateful, unholy," These foolish men do not build their lives on God's word, their foundation is like sand,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wanting to have their ears tickled, they will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and wi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will turn aside to myths." (2Tim. 4:3~4) As a Christian, a person who loves Jesus and obeys His word, "You, however, continue in the things you have learned and become convinced of, knowing from whom you have learned them, and that from childhood you have known the sacred writings which are able to give you the wisdom that leads to salvation through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adequa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Tim. 3:14~17) My dear friend, the foundation built on the Word of God endures forever. Of the two foundations that Jesus talked about, which one do you live on? 

두 기초

⁽²⁴⁾“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²⁵⁾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²⁶⁾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²⁷⁾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24~27)



김성파 목사

모든 것은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지만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면 들었던 것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나중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24절) 반석은 견고한 기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 62:2)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유일한 반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3:11은 말합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하고 견고한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없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니 하였느니라”(딤후 2:19) 여러분의 인생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25절)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든든한 기초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26절)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집을 짓는 데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은 자신의 돈, 명예 그리고 가족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24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온통 하나님께 돈과 축복을 달라는 내용뿐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알리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을 세우는 수많은 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 위에 인생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쾌락 위에, 또 다른 사람은 자존심 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타인의 칭찬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27절) 폭풍이 불자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초의 차이를 아는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각각 지은 집의 기초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의 집 모두 극심한 폭풍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와 홍수, 바람이 똑같은 위력으로 두 사람의 집에 몰아쳤습니다. 차이는 어떤 기초 위에 지어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기초 위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1~2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초는 모래와 같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딤후 4:3~4)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4~17)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초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기초 중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시간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시계라는 것을 이용하여 신비한 시간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시간은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태양을 중심으로 빛의 속도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공통된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경험은 각각 다르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 신비함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이토록 거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만물을 통해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신비함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보여 주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개념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된다.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시점을 인간은 긴 시간을 합친 것으로 본다.(시 90:3~4) 또한 하나님의 '영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8)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한 순간을 영원으로 표현하시며 또한 영원도 한 순간으로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곧 영원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라고 하셨다. 현재형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요 8:58, 18:6; 히 13:8)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영원에서의 끝은 곧 시작과 같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체적인 시간을 보시고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다.(예 22:13; 뎁전 1:17; 미 5:2; 사 44:6)

하나님은 또한 모든 세대, 곧 가고 오는 세대를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을 긴박한 일로 보신다.(전 1:4~5, 9, 13)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재림에 관하여 경고한다.(요일 2:25, 28)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져(벧후 3:10, 12~13; 약 5:8) 긴박함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간 속에 속하여 있다. 우리의 모든 '지금(현재)'이 합쳐져서 역사를 이루고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이다.(시 90:1~2)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역사와 관계가 된다.(골 1:13~17) 회랍사상이나 힌두이즘에서는 "시간은 끝이 없이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끝없는 시간의 헛바퀴 속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간과 역사는 이러한 정반대로, 시작에서 끝으로 움직이고(빌 3:20~21) 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을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시간은 계속하여 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라고 하시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전 3:11, 12; 13:14)

많은 인간들이 이 영원성을 부인하고 억척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 다양한 문화와 예술 속에 그려지고 표현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모하는 마음(욕망)은 신비한 경험인 약물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라고도 한다. 영원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가? 시작도 끝도 없는 곧 시간이 없는 상태(Timelessness)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에게 장래가 있다고 말한다. 시간은 창조한 한 부분이고 피조물은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간과 영원 사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뎁전 6:15~16)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단일성의 시간, 곧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 다원성의 시간 안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하잘 것 없이 작고 미미한 일을 볼 때에도 영원의 시각 속에서 보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미련하게 살지만 모세는 이것을 보았고 또 알아서 인간의 삶의 그 짧은을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교하여 풀의 꽃으로 설명해 주었다.(시 90:5~6) 궁극적인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관찰할 때에 찾을 수가 있다. 우리와 고층 중에 있을 때에 이 영생의 개념은 큰 위료가 된다.(고후 4:17~18; 롬 8:18)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범위 안에서 성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성경은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엡 5:15~17)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충실한 것을 말해 준다.(마 6:34) 참으로 구원의 날이 중요하다.(고후 6:2)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지금(현재)' 뿐이다. 이 '지금(현재)'은 항상 '영원'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의 과정에서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국까지도 멀거나 아니라 과정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계획과 목적에 지나치게 얽매일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에 매일 순종하는 것보다 계획을 앞에 놓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약 4:13~15) 계획과 목적이 필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이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견해 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시간은 아주 소중한 것이므로 잘 사용해야 한다. 허비해서는 안 된다.(잠 20:13) 시간은 저장해 둘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느껴야 한다.(약 5:8; 뎁전 4:7; 롬 13:11~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조금도 촉박해 하시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시간에 대하여 열려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다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다 하신 후에 말씀하신다.(요 17:4~5) 바울도 고백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우리의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잊어서는 지나쳐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영원히 있는 시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의 영원하신 안에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영혼이 심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금하시지 않다. 아멘.

김성만 위임목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장년2부



정철길(정로, 장년2부장)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건전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0~11) 장년2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대와 교회를 이끌어 갈 종현의 50대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깨닫고 나날 정령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과 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열려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을 자꾸만 세상을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면, 그 아무도 함께 하려 하지 않았던 갈보리 십자가의 길, 그 좁고 험악한 고난의 길을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제자로서 온전히 걸어 가기 위해 복음 앞에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장년2부는 매주일 3부예배 후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제1교육관 407호에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년2부에는 마리아나 중창단이 조직되어 있어 집회 전 찬양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또 집회 중에도 다른 일꾼들과 함께 매 주 돌아마다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집회 전 교사기도회를 통하여 지도목사님과 52명의 교사들은 자기 부인과 은혜로운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한 주님이 되도록,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겔 2:20)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반공부시간에 나날 복음에 대한 말씀공부로 교사들은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고 또 영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치기후원 때 주어진 말씀처럼 '두 세계'(요 18:36)를 기억하며 교회의 방해와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장년2부가 되자 합니다. 우리 장년2부는 제적 학생 254명이 평균 200명 이상 출석하여 꾸준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80%는 교구나 타 부서 또는 여러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데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장년2부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저지 너무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도착예배를 드리며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여 눈시울을 적시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씩 언어도 숙달되어 가고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 않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기가 많이 수월해졌는데, 벌써 사역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셨고, 곳곳에서 육신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어린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린이사역을 적절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돌풍이 불어서 많은 피해와 사상자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는데 매일 좋은 날씨를 주시고, 첫날 사역에서부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부요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신이 좋다."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몇몇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 저의 마음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자부심으로 무척 가슴 떨리고 기뻐했습니다. 아침 경건회 때 팀장님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 11:30)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복된 일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권연숙(권사, 6교구 2지역팀)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믿음의 선지자들의 마음을 느낀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낮이든 밤이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씨름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을 그들을 그리면서 오늘 의 교회주변 전도를 위해서 집을 나선다. 매일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제1교육단, 3.4층에 모인다. 1부 집회에서는 전도기도회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다. 2부는 교회주변 전도로 진행된다. 세분화되어 주어 진 전도지역을 향해 교회 문을 나선다. 3인 1조로 팀이 되어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 전도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이다. '이 전도지는 오늘 내가 꼭 전해야 할 예수님의 생명과 참 사람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편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우체부이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에 냉담할 때가 많다. 때로는 우리 전도자들을 축하든 여기며 못 잊지 축 받아만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면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

저만치서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겸손히 그에게 다가갔다. 겸중하게 전도지를 전해 주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는 전도지를 받으면서 전도지에 관심을 보이거보다는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전도하나요? 남자분들이 전도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이사를 왔어요. 아직 이삿짐도 제대로 정리 못했어요. 내일 회화를 가야 할 텐데, 어디에 어떤 회화가 있는지 몰라서 어둡기 전에 찾고 있었어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고 충언회화를 소개했다. "우리 충언회화는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전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힘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온 교인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가 되어져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제가 그런 회화를 찾기 위해 이곳에서 기도하고 서 있었어요!" 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주일 11시 예배에 초대하고 참석할 것을 약속한 후 헤어졌다.

지금 그분은 참으로 복된 교회에 인도받았음을 감사하며 그 누구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며 아름답게 성전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다. 종종여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그래,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었구나!"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나"(마 5:47)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회개의 영이 뜨겁게 나를 흔들어 기쁨과 감사로 눈시울을 적신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힘 있게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며 나로 인하여 구분되어진 내의 사람이다. 너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른 어떤 점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음 총력 교회주변전도일에 함께 할 총현의 전도회원들을 기억하면서 차에 오른다.

박진욱(안수집사, 17교구)

믿음의 씨앗

숙소에 짐을 풀고 그곳에서 하루를 묵은 뒤 다음 날 선교지를 향하였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도착 감 사예배를 드렸고, 이어 5시부터 사역지를 탐방하며 노 방전도, 축조전도 시범사역에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에는 선교지에서 25km 떨어진 외곽 도 시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열매나무 숲 속에 들어가니 그 나무로 지은 원두막 같은 집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전도지를 건네고 서툰 언어로 전도하며 마주친 그들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했고 스르르가 물을 흡수하듯 잘 받아들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집마다 어린 아이까지 많았는데 대나무로 만든 평상에 앉아 전도 를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웃집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전도지를 콘소리로 열 심히 읽어 내려갔다. 펜사냥들이 울릉도와 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하면 아이들이 신기한 듯 열심히 따를 줄리면서 따라했고 열에 있던 부모들도 호탕해 졌다. 어른들 앞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반복하며 부르면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혜를 받 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 점심 때가 되어 각 외곽 지역에서 옥수수와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잠시 쉬고 있을 때 팀장님이 그들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는 아저씨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베드로가 그들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제자를 삼는 말씀이 떠올라 그쪽 으로 가 보니 거기에는 새끼말개 그늘린 아이 세 명 이 아버지가 잡아준 물고기를 꼬챙이에 끼워 들고 있 었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읽어 주었고, 찬양을 들은 듯했다. 열심히 울음을 따라하느라 이미 웃은 얼굴에 다 젖었지만 은혜가 넘쳤다.

선교 마지막 날 우리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의 부모 님을 찾아가 전도를 했다. 모두 7형제로, 대가족이 살 고 있었다. 그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훗날 기사가 그 땅에 선교사로사의 삶을 살도록 기도드렸 다. 우리는 그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곳에 교 회가 세워지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교지 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김예재(집사, 11교구 1지역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9일(화)-8월 27일(수)	12교구 4지역	이인웅
8월 20일(수)-8월 28일(목)	대학부 9팀	지규성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1일(월)-8월 18일(월)	4교구 6지역	김영모
8월 11일(월)-8월 19일(화)	13교구 6지역	오동혁
8월 12일(화)-8월 20일(수)	23교구 6지역	한홍연
8월 14일(목)-8월 21일(목)	예배대부 1팀	변창대
8월 14일(목)-8월 21일(목)	예배대부 2팀	윤영범

나에게 주신 전도 대상자

교회 주변 전도나 학원전도를 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까지까지 하고 돌아서면서 난 나의 열정과 노력에만 만족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선교를 앞두고 주어진 과제, 전도! 나의 생각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가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전도할 대상을 알려 주세요!"라고 테스트이 기도했고 그 기도를 주님은 들어 주셨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예전의 단짝친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 아무리 단짝친구였지만 집도 멀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다 보니 지금은 가깝지만 먼 친구가 되어 버렸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충청교회에 나오고 얼마 안 되어 그 친구의 어머니를 교회에서 만났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셨다. 얼마나 반갑던지……, 당연히 친구도 함께 나오려 했으나 피곤하고 거리가 멀어 안 나온다고 했다. 그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지난 4월 초 오랜만에 친구어머니를 만났다. 그런 지 얼마 후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했고, 며칠 뒤 친구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나는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 나에게 주신 전도대상자가 바로 이 친구임을 알았다. "친구야! 어머니 모시고 같이 좀 나오지!"라고 말하면 "아~ 피곤해 죽겠다. 멀고 힘들어서 못 나가!" 하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러진 장례식에서 친구의 가족들은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다.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끄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살아계신 주님께 놀라고 감사를 드린다. 매주 새가족양육부에서 교육을 받는 친구를 기다리며 이렇게 다시 주님 안에서 얼굴을 보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최지숙(집사, 11교구)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나는 나의 세상 욕심과 핑계, 교만으로 가득차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신앙인이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을가 항상 조마조마해 하고 있던 나에게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충현기도원에 같이 가자."는 마리아 전도회장님의 제의를 받으며 계속 가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의 마음은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어졌다.

기도원으로 출발하는 날 올 겨울 마지막 내린 눈으로 기도원 주위에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 드렸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계속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다. 매주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난함을 계속 일깨워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선물인 아이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고난한 모습도 깨닫게 하셨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던 내 생각과 지식이 부족한데 세상 것들로 그 부족한 면을 채워 나가기 했다. 세상 부모들이 아이에게는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나 만족할 수 없다고 했던 아이와 내 아이가 끊임없이 비교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걱정근심들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성령을 임기 시작했다.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배우고 순종하면, 자녀도 함께 자라게 하신다.' 너무 쉽게 나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 세상 모든 지식들을 알기 전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모의 사랑을 일깨워 주셨다. 매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치밀하게 간섭해 주신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다. 아직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만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내가 고난한 마음을 풀을 때마다 더욱 겸손해지라고 책적질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낀다. "더욱 감사한 마음을 품으라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김승현(집사, 14교구)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찬양하는 기쁨과 은혜라고 대답할 수 있다. 찬양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도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 20여 년간 찬양대봉사를 하지 못했다. 어느새 나의 기도는 우리 어린 딸들이 50세까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고 있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은 나에게 찬양할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다. 지금도 찬양대에 서면 찬양할 수 있는 은혜에 감격의 눈물이 나곤 한다. 또한 금요찬양집회는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린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곳이 또 한곳이 있다. 바로 12시 30분에 드려지는 장년2부 집회로, 15분 전 찬양의 시간이다. 5명의 찬양 인도자들과 장년2부 지체들의 찬양소리가 합쳐져 제1교육관 407호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은혜로 넘쳐난다.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장년2부에는 마라나타 중창단이 있다. 충현기도원에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찬양하며 주일에는 매월 셋째 주 장년2부에서 찬양을 한다. 기도원에서 찬양연습을 하다가 손을 잡고 회개기도와 감사기도,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한 준비기도를 할때면 언제 약속이나 한 듯 모두들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보좌를 울리게 하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찬양대원 모두에게 참 평안이 있게 하소서." 지금은 남편과 딸 셋, 사위 둘, 손녀까지 다 찬양대에 봉사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 "사랑의 주님, 마음속에 항상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믿으며 한평생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김숙자(권사, 장년2부)



주님 사랑 속에 웃음꽃이 활짝

주일2부예배를 드리고, 복지관 지하 1층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냥 기쁘고,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하면서 달려오는 예쁜 친구들과 부동경안고, 뽀뽀도 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부 종결입니다. 사랑부는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행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란 말씀을 기초하여 신학과를 비롯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등 총10개 반이 있습니다. 1대 1 교육 원칙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80명의 교사들과 여러 장애틀 가진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양과 율동과 기도 등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지유하는 부서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시작 전에 찬양과 율동으로 사랑부 가족들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놓습니다. 예배시간에 몸이 불편한 친구는 선생님께 기대기도 하고 뒤늦게 한구 내려고 경대상 앞으로 달려 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비록 어느 교회학교 예배시간과 다른 전통경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순수한 어린 아이(아: 18:4)의 마음입니다.

특히 생각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사랑부 신학과에 갔다가 10월에 우리과로 온 두 학생입니다. 7개월 가까이 우리과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정이 들었던 비성마비2급의 시설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학생들입니다. 전통월제에 몸의 의지하고 전철을 이용해서 눈이 와도 교회에 왔던 두 친구였습니다. 정말 방향이 갈아서 전철에서 만나 이야기하며 복지시설까지 같이 가면서 더 친해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자 개성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던 한 친구는 웹디자인 배 배우고, 또 한 친구는 격주로 주일에 뽀뽀송송 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랑부 기동동역사로 나서서 문자와 인터넷을 통해 만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자식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충현의 성도님들께서도 사랑부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순(교사, 사랑부)

예배와 질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40)



예배는 신자의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행 2:46)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이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요 4:24)의 예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 시작 15분 전, 예배실에 오셔서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 성령의 예배의 기본입니다. 교회 내 모든 모임 때문에 예배에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늦어오는 분들은 예배 중에 졸거나 잡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순부제질을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옆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니만큼 조급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은 가급적 탁아부에 아이들을 맡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실이나 모임장은 다음 이용부서를 위해서 모임 후 정리정돈해 주시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를 가져오실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서행(5km 미만)해 주시고, 정해진 주차구역에 반드시 주차하시되, 주차안내자가 있을 경우 지시에 잘 따라 주십시오. 주일이나 금요일에는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보조브레이크를 풀어서서 긴급한 상황에 차량이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또한 화단이 있을 때에는 전면주차를 하여서 화단의 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일은 부당과 의무감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골 2:5)

(행원위원회)

2008년 여름수련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합 3:2)

십자가, 나의 생명



십자가가 나의 생명 되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대 학부집회와 주일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수련회라는 시간을 통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20대의 청년들이 모여 오직 예수님을 알기 원하며, 부름의 소망을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로 이끄신 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어쩔 수 없는 나의 외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것을 넘어서는 것을 싫어했고,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는 것, 더 나은 것 등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들의 지에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했음에도 예수님은 저를 먼저 주셨고,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고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인 그 3일 동안에도 저의 감정,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경 쓰였고, ‘아, 주님! 어떻게 이런 시간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지요?’ 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수련회를 통한 3일간의 은혜가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쁜 참 복을 누리는 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돌이키고 대하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신 3일간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정희(대학부))

십자가의 길

이단을 경계하라

“백성 가운데 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더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딤후 2:1)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이단의 공격이 심하지 않다. 예전에 비해서 이단의 규모와 활동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이단들의 활동은 여전히 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종교자세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기존 교회의 신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한 이단의 치밀한 전략이 기록연로에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 이단에 의해서 일부 교회들은 교인들이 떠나거나 분열되는 큰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사탄의 전략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순간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 중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골 2:15) 동시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광명의 천사(고전 11:14)로 위장한 사탄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고전 2:2) 이단의 가르침에는 십자가가 없다. 성경해석이 난해한 구절을 연구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허황된 속임수뿐이다. 물론 이단들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참된 회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빠진 조작된 예수와 십자가를 주장할 뿐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하게 하여 함이라”(갈 1:7) 이단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이다.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다. 이단의 고리, 교주가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대답이시다!

(다음 호에 계속)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11	임휘영	1	대학부	김연수(23)
1612	김보경	13	청년2부	김연수(23)
1613	심영숙	6	장년2부	심영숙(6)
1614	박석경	16	장년1부	박경혜(13)
1615	김종근	18	장년2부	허미자(24)
1616	김철환	11	장년2부	박성명(16)
1617	강미숙	12	장년2부	
1618	이삼순	2	소망부	박한나(2)
1619	투이	25	외선부	조영구(9)
1620	이분순	3	소망부	

* 중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